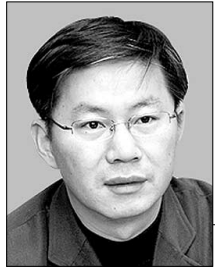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북·미간 마주 달리던 기차가 일단 멈춰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8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북한 주권국가 인정 여부 확인 후 6자회담 참가 결정'이라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북한 주권국가 인정과 북한 공격 의도 없음'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평양과 워싱턴이 오랜만에 아귀가 맞는 발언을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북핵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선 느낌이다.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북핵 문제는 흥미를 거듭해 왔다. 4차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은 보이지 않은 채, '6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등 각종 위기설이 난무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언론에서부터 제기된 북한의 '핵실험 징후설'은 꼬리를 물고 논쟁이처럼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곧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처럼 추측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시사는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을 압박했다. 더욱이 부시 미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으로 부르고, 북한이 부시를 '불망 나니'로 비하하면서 북·미간 갈등은 감점자수의 양상으로도까지 확대되었다.

국단적인 대결로 치달던 북핵문제가 최근 대화로 전환되고 있는 데에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



불자 세상보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화로 푸는 '북핵' 화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 행사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이 실질적인 대북 압박 카드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면서도 대북 압박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중 관계는 협맹관계라는 역사의 차원을 넘어 지리적으로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미국의 '중국 포위론'을 의식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용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선택인 것이다. 우리 정부도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

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반대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 모험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역할을 추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북한의 핵실험징후설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혹 확산을 막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이 중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한국의 역할 속에서 미국이 제재를 일단 거두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는 대화국면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북핵문제의 전개과정을 볼 때, 이 같은 국면 전환의 조짐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던 이 문제가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유관 국가들의 자세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은 남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최고조로 끌고 가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따라서 북한은 조속히 6자회담 틀로 복귀하고, 그 속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대북 압박정책을 포기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 폐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양자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쨌든 6자회담은 어느 일방이 완성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기를 통해 북한과 미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북·미간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대결에서 대화로의 전환을 통해 북핵문제 해법의 실마리가 조속히 풀려야 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며 한반도가 평화와 위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어진 것을 잘 나누는 것은 사회를 정의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본이었다. 이른바 정의란 음부의 몫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재화가 무한정하다면, 욕망에 따라 나누면 될 것이다. 거기에는 싸움도, 많이 가진 자에 대한 시기과 질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몫을 무단히 내어주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재화, 재능, 서비스가 희귀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럴 경우 강제로 나눌 수밖에 없으며, 아주 정교한 나눔의 기술이 아니고는 다툼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인류는 수 천 년 동안 어떻게 하면 만인이 승복하는 공정한 분배의 틀을 정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처럼 강제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것(socially good)'으로 꼽는 돈을 자발적으로 내놓기도 한다. 죽은 후는 물론이고,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나눔과 어울림'의 확산

신체 일부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발적 나눔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든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발적 나눔이 돈보다 더 좋은 사회적 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화와 용역은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으로 자리하지만, 나눔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마음의 평안으로 돌아온다.

본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이 서비스, 헌, 생명, 재능을 얼마나, 어떻게 나누며 사는지 조사했다. 조사결과 불자들의 나눔 정신은 우리 국민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불자들은 생명나눔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진 것을 나누고, 빈손으로 어울리는 것, 즉 '나눔과 어울림'이라는 불교의 기본정신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눔은 숭고한 것이기에 때문에, 인위가 개인해서는 안 되고, 선한 의지(free will)의 장터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지배 사회에서 나눔을 효율적이고 체계 적하게 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개인의 자발성에 맡겨두기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나눔이 '잘난 사람'만의 의무(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보편 문화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구승희(동국대 불교학 교수)

'연대' 민영

심민섭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보성다향제를 다녀와서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과 8일, 차밭으로 유명한 전남 보성에 다녀왔다. 마침 보성다향제 기간이라 작은 마을 곳곳이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전날 비가 와서 날씨는 무척 쌀쌀했지만 광고와 드라마에 나왔다는 차밭을 보고 부모님들이 무척 좋아하셨다. 차를 거의 마셔보지 않은 분들이지만, 드넓은 차밭에서 사진도 찍고 무료로 나눠주는 차도 마시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하지만 차밭 구경을 마치고 보성군 체육공원에 마련된 다향제 행사장을 찾은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제사업체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차를 나눠주는 부스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행사장 3분의 2 이상은 차와 상관없는 상품 판매와 음식 점들로 즐비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다례 경연대회가 열린 체육관 안에도 참가자를 제외하곤 지역 주민 10여명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작이었다.

게다가 원래 1시간이 예정된 '우리 옷 바로 입기' 행사는 불과 20분 만에 끝나 버려 더욱 황당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역축제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지역 특성을 부각하고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김선애(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스님 맞나요?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스님 행색을 하고 부처님이 그려진 카드를 내밀며 돈을 요구하는 외국인인 그들이었다. 웃는 얼굴을 하고 있고, 특히 승복 비슷한 차림을 하고 다다오기에 불자로서는 그들의 부품을 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얼마의 돈을 주고 그 카드를 사게 된다.

나도 그 카드를 몇 번 산 적이 있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불교의 이미지가 흐려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외국인 스님들이 구걸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다.

그러나 정체를 불명의 외국인이 구걸의 수단으로 스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단속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불교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현(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연등축제에 참가해보니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거리축제가 벌어졌다. 쌀쌀한 날씨여서 그런지 처음에는 좀 쌀렁한 느낌이 들었지만 연등축제 현장은 곧 인파로 가득 찼다. 이번 연등축제에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참가한 것 같다. 가족단위에서부터

단체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어떤 가족은 공연무대 앞에 걸터앉아 옥수수를 먹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하다보니 연등축제를 즐기러 나온 내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았다. 각종 체험코너는 넘쳐나는 외국인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고 나만의 감정인지는 모르나 찬밥 취급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연등축제는 외국인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물론 관광 온 외국인들을 우대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축제를 즐기러 왔다는 측면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로 냉대받을 느낌을 가진 이들은 내년 축제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지혜성(서울시 경진구 구의동)

6면 상식 퍼즐 정답

마	하	가	섭	군	기
야	람	대	원		
부	군	동	승	정	
인	가			황	사
				백	
백		우	담	바	라
녹	야	원	사		면

이렇게 들었다

국적 포기

부모는 세 가지로 자식을 경진해야 한다. 첫째로 자식을 제어해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해야 하며, 둘째로는 착한 행위를 가르쳐 주고, 셋째는 학(學)과 도(道)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선생경>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5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뒤, 법 개정안이 공포되기도 전에 '한국인임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 내 국적업무 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간 27건이던 국적 포기 신청 건수가 불과 며칠만에 16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히 '폭발적인' 수치다. 신청 연령대와 성별을 들여다보면, 그 심각함은 더욱 짐작이 깊다. 대부분이 14~17세 남자들이다.

예 이들은 6월 법 시행에 앞서 부러나게 '한국 국적 포기 행렬'에 나서고 있을까? 이들의 속사정은 뻔하다. 병역 회피에 있다. 새 국적법이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 포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있다. 어떤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는 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그 과정과 통기가 '불순'하다면 문제가 있다.

영문도 모른 채 부모의 손에 이끌려 단 10여 분 만에 국적을 포기했다는 13살 아이를 생각한다면, 분명 곱씹어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국적 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국가 정체성을 뒤흔든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중 대부분이 미국 등으로 이주하지 않는 한 한국 땅에서 거주할 텐데,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혼란은 어떻게 할지, 벌써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진다.

■ 김철우(취재부 기자)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칠 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중앙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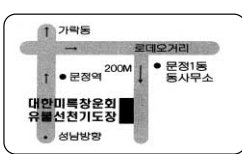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量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절망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입니다!